

민수기

메시지 5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오늘날의 나실인들이 되는 것임

성경: 민 6:1-9, 계 1:2, 19:10

- I. 인류 가운데 유일한 나실인은 주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실인은 인성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 요 5:30, 빌 2:8, 비교 마 11:28-30, 엡 4:20-21, 요 6:57.
- A.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온 일생 동안 버터(가장 풍성한 은혜)와 꿀(가장 달콤한 사랑)을 드셨다. 이러한 아버지의 가장 풍성한 은혜와 가장 달콤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속한 선한 것들을 선택하시고 악을 거절하실 수 있었다 — 사 7:14-15, 마 11:25-26, 14:22-23, 26:39, 막 1:35, 눅 5:16.
- B. 어떤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무언가를 포기하며 자신을 부인하거나 어려운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 배후에 가장 풍성한 은혜이시자 가장 달콤한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것에서 비롯된, 강화하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 요 1:17, 롬 5:17, 딤후 2:1, 고후 5:14-15, 갈 2:20, 롬 8:37, 12:1-2.
- II.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나실인이 되기를 갈망하신다. 나실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절대적이고도 궁극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분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 곧 예수님의 증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위하지 않는 것이다 — 민 6:1-2, 시 73:25-26, 계 1:2, 9-13, 19:10, 비교 민 2:2.
- A. 포도주나 그 근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은 땅에 속한 모든 종류의 누림과 즐거움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민 6:3-4, 비교 시 104:15, 전 10:19.
1. 나실인은 땅에 속한 어떤 종류의 즐거움에서도 절대적으로 분별된다 — 눅 2:46-49, 고후 6:14-7:1, 약 4:4, 요일 2:15.
 2. 우리는 우리의 새 포도주(기운을 북돋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이자 우리를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전제물로 하나님께 부어질 수 있다 — 마 9:17, 아 1:2, 4:10, 샬 9:13, 딤후 4:6, 빌 2:17.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5 (계속)

- B. 머리를 밀지 않는 것은 주님의 머리의 권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대표 권위를 거스르지 않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 민 6:5, 롬 13:1-2상, 엡 5:21, 23, 6:1, 히 13:17, 벘전 5:5.
1.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골 1:17-18.
 2. “머리를 붙들(고) ...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 골 2:19.
 3.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복종으로 충만하여 복종적인 영과 위치와 분위기와 의도를 갖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와 우리의 장래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 빌 2:8-9, 엡 5:18-21.
 4. 주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은 큰 축복이며, 심지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 아래 있는 것조차도 큰 축복이다 — 엡 3:1, 4:1, 6:20.
 5. 복종에는 능력이 있다 — 삿 16:17.
- C. 자신의 혈육의 주점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분별되어 거룩한 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은 나실인이 천연적인 애정을 이긴 것을 의미한다 — 민 6:7.
1.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랑이신 그분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 마 12:48-50, 빌 2:21, 고전 13:4-8, 13, 딤후 1:7.
 2.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문제는 천연적인 인간관계와 관련된 천연적인 생명으로 인해 일어났다 — 레 2:11, 행 15:35-39, 골 4:10.
 3. 우리는 천연적인 열정과 천연적인 애정과 천연적인 힘과 천연적인 능력을 지닌 천연적인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것에서 자신을 분별하여, 그 영에 의해 살고 그 영에 의해 행하고 그 영에 의해 봉사하면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에 의해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야 한다 — 레 10:1-11, 갈 5:25, 빌 3:3, 롬 1:9, 8:4, 스후 4:6.
- D.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나 곁에 있던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이 죽음에서 분별되는 것을 상징한다 — 민 6:6-9.
1.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죽음이다 — 계 3:4, 레 11:31.
 2. 여러 종류의 영적인 죽음, 곧 거친 죽음(들짐승의 사체), 부드러운 죽음(집짐승의 사체), 간교한 죽음(길짐승의 사체) 등이 교회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퍼질 수 있다 — 레 5:2, 비교 요일 5:16상.

민수기

메시지 5 (계속)

3.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서,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을 관심하며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 — 롬 8:6.
4.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기도함으로써 반드시 ‘항(抗)죽음제’,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 롬 8:11, 엡 6:18.
5. 우리가 어떤 예기치 않은 죽음에 의해 더러워졌다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다시 분별해 드림으로써 새롭게 헌신하여 새로운 시작을 가져야 한다 — 민 6:9-14 상, 비교 삼상 1:11, 2:11.

III. 성경은 우리에게 두 명의 나실인인 사무엘과 삼손의 대조를 보여 준다.

- A. 사무엘은 신실한 나실인의 긍정적인 본이다 — 삼상 1:11, 28, 2:28, 35, 3:20, 7:15.
 1.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반향하고 말해 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이 신성한 움직임과 협력하는 것이었다.
 - a. 하나님은 생명의 노선에서 그분과 하나였던 사람인 한나에게 동기를 부여하실 수 있었다. 그러한 사람을 얻으실 수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길이 있으시다.
 - b. 한나의 기도는, 그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삼상 1:10-17)이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 드리는 데 절대적인 한 나실인을 산출하는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된 사람, 하나님을 머리로 취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남편으로 삼는 사람,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에는 관심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
 2. 사무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였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곧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의 대표자로서 사역하기 시작하였다 — 삼상 7:3.
 3.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새로운 제사장과 신언자였다. 그의 말함은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성한 계시를 통해 시대를 전환하여 왕권을 가져왔다.
 - a.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으로서, 곧 하나님의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모든 봉사자들을 대치할 자원자로서 사역하였다 — 삼상 1:11, 28상.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5 (계속)

- b.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으로서 사역하면서, 진부하고 하락한 제사장 직분을 대치하였다 — 삼상 2:30, 35, 비교 삿 9:9, 13, 신 34:7.
 - c. 사무엘은 신언자로서 사역하면서,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들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다 — 삼상 3:1-10, 19-21.
 - d. 사무엘은 왕권의 실재 안에서 사사로서 사역하면서, 낡고 진부한 제사장 직분이 백성을 판결하던 일을 대치하였다 — 삼상 7:15-17.
 - e.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길 안에 지켜지도록 기도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갈망이 성취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 삼상 8:6, 12:20-25, 15:11.
4.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무엘 안에 복사되었고, 따라서 그는 순수하고 단일하였다 — 비교 마 5:8, 6:22-23, 딤후 2:22.
 5. 사무엘의 행함이나 생활이나 일만이 아니라 그의 전 존재와 인격이 하나님과 일치하였다. 사무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였다. 그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였다.
 6. 사무엘이 고려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그에게는 다른 어떤 생각이나 고려가 없었다.
 7. 그는 조금도 이기적이지 않았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 비교 마 16:24, 눅 9:23-25.
 8.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민 외의 다른 것들에는 조금도 그의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반영이었고(비교 고후 3:16-18), 그의 생활과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9. 사무엘은 자신의 후손을 위한 왕국을 세우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국을 가져오시는 것이 쉬웠다. 따라서 사무엘은 시대를 전환한 사람이었다.
 10. 비록 사무엘이 그의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표하기가 쉽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했고 시대를 전환했다. 구약에 따르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그분의 권익을 위하는 면에 있어서 모세와 동일한 위치에 놓인다 — 렘 15:1.
- B. 삼손은 나실인의 부정적인 예이다 — 삿 13:3-5, 고전 10:6.

민수기

메시지 5 (계속)

1. 그의 기원은 여호와와 천사가 나타남으로 일어난 기적이었다 — 사 13:3.
2. 삼손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거룩하게 되어 나실인이 되었다 — 사 13:3, 5.
3. 그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순결하고 순수했다 — 사 13:4-5.
4. 삼손은 거룩하시고 경륜적인 영이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 능력을 얻었다 — 사 13:25, 14:5-6, 19.
5. 삼손은 생명의 영 안에서가 아니라 능력의 영 안에서 움직인 사람의 실례이다. 그는 매우 능력이 많았지만, 우리는 그에게서 생명에 속한 것을 조금도 볼 수 없다.
6. 삼손은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 빠짐으로써 실패했다 — 사 14:1.
 - a. 그는 배우자를 찾는 데 진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여자들을 접촉한 것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 사 14:1-3, 10-17, 16:1-20상.
 - b. 그는 비록 하나님에 의해 능력을 얻었지만, 정욕에 빠지는 바람에 극도로 손상을 입었다.
 - c. 결국 여호와와 그를 떠나섰고, 그는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몰랐기 때문에 비참한 종말에 이르게 되었다 — 비교 딤후 2:22.
7. 나실인에게 필요한 것은 급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사 14:6, 19). 그보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